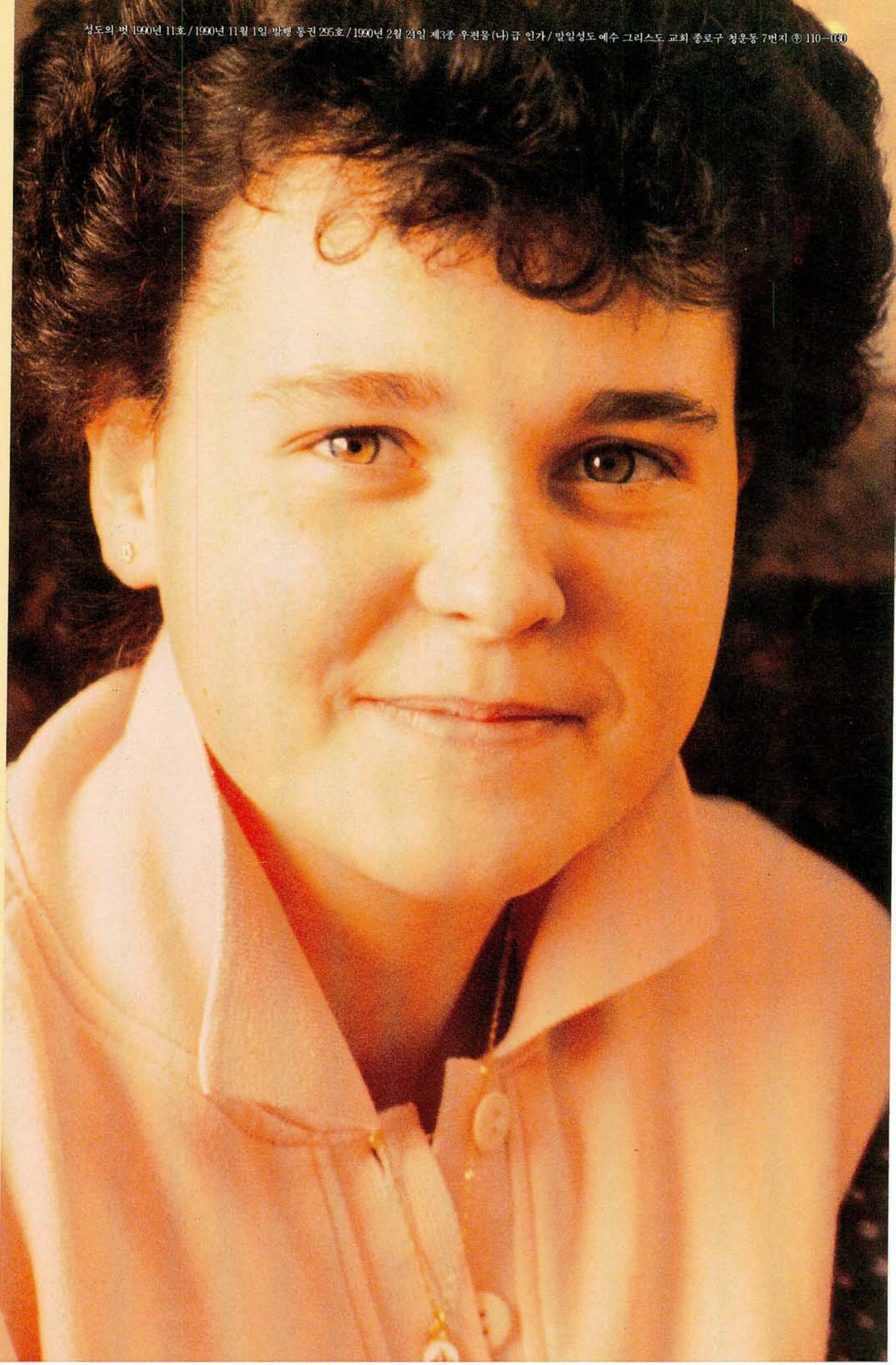


성도의 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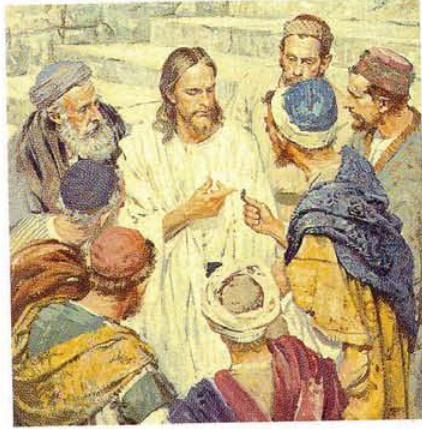


11
199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빛

1990년 11월호



일반

2

대관장단 메시지
산 위에 있는 동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0

베르나르트 레프란트
알리스 브루어 새일리

18

모범 가족이 되기 위한 열쇠
윌리엄 지 다이어·필립 피 쿤즈

25

말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

26

가장 훌륭한 장소
앤 렘린

30

아무도 내가 한 것을 보지 못했어
매리안 이 플린트

32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잭 엠 리온

40

300개의 양피 두루마리
마리오나 워쉬번

42

양들의 이름을 읽
신시아 퍼넬

청소년란

14

마음으로 들음
앤 시 브랜샤

36

봉사에 대한 60가지 아이디어

46

올바로 지으십시오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정기특별기사

1

애독자 편지

9

방문 교육 메시지
예언자를 따름으로써 주님을
기억함

65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희생은 하늘의 축복을 가져옴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67

교회 및 지역 소식

어린이란

50

물문경 이야기
이노스

52

가족 기록자
리자 달그런

55

함께 나누는 시간
제일 먼저 할 일을 우선으로
로럴 플핑

58

재능있는 친구들
60

친구가 친구에게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

62

메이 린을 위한 축복
비키 블룸

표지 : 데보라 퍼거슨은 청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생활의
기쁨을 전하고자 한다.

“마음으로 들음” 14쪽 참조.

간증을 강화함

매달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성도의 벗에 대한 짧은 간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방부에서는 일년에 두번씩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두들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방문과 성전 의식을 소망해 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호와 10월호 성도의 벗에 나온 성전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전 선교사에 관한 기사는 성전에 관한 저의 소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저희들이 성전을 방문할 때 가져야 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저의 간증은 작고 연약하지만, 내일은 깊고 튼튼한 간증을 품고자하는 소망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성도의 벗을 읽고 저의 간증을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최미경 자매

강릉 지부, 강릉 지방부

잘 쓰여진 돈

저는 매달 교회 잡지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관한 긍정적인 얘기를 읽을 때면 문득 “우리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각자 훌륭한 기사를 읽을 때에 와드에 있는 친구나 회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얘기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증 때에 교회 잡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감화를 주었는지에 관한 경험을 나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와드에 있는 모든 가족이 구독 신청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메시지에 의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되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의 친구들도 느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구독 신청자 수가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친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에게 구독 신청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쓰게 되는 가장 가치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교회 잡지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캘빈 슈메이커

워싱턴 주, 오본

바로 그 날

저는 교회 잡지를 매우 즐겨 읽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감독님께 말씀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감독님께 죄를 고백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도의 벗’ 8월호를 받았습니다. 그 책의 ‘질 의 응답’에는 제가 갖고 있던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28쪽 ‘감독님께 고백함’ 참조) 그것을 읽은 후 저는 혼자자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날 저는 감독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사를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들과 경험을 나누는 청소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익명

빛의 길

1967년 제가 아내와 함께 침례받을 때, 선교사들이 리아호나 (스페인어 판) 구독권을 선물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형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마치 부드러운 빛과 같이 전달되었으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들을 읽고 영적으로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는 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 있는 빛의 길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세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선한 모범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이스터 아일랜드(칠레 샌디아고 북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빛의 길 위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동기를 주고, 이곳 라파-누이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대관장단 메시지를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아호나는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페드로 산도발 장로와

엘레나 엠 산도발 자매

이스터 아일랜드, 라파-누이 지부

1990년 11월호

성도의 벗은 발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루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절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러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재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킵
 고문 : 렉스 더 피네가, 진 알록,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프란시스 엠 기빈스, 제프리 알 홀런드

통 권 : 제295권, 제27권, 제11호
 동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인 : 1990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발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0년 재단법인 발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의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0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0911 320
 Printed in Korea 11/90



산 위에 있는 동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는 워싱턴 성전 헌납식 때의 특별한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성전의 영접자로서 저는 거의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 입구에 서서 그곳을 찾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었습니다. 이 특별한 손님들 가운데는 미국 대통령 영부인, 대법원 판사, 국회 상하 의원들, 각국의 대사, 성직자, 교육자, 실업계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다녀간 뒤에도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스러운 집을 다녀갔습니다.

성전에 대한 기사가 여러 신문과 잡지에 주요 기사로 실렸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도 이 소식을 널리 보도하였습니다. 그 무렵 미국 동부에 세워진 건물 가운데 이처럼 큰 관심을 끌었던 건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찬사와 경의를 표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영부인은 성전을 떠날 때 “이곳을 방문한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 저희들은 모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이사야 2:3)

성도의 벗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 입구에 서서 매일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제 머리 속에는 줄곧 두 가지의 생각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 하나는 과거에 관한 생각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135년 전의 옛날 일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일리노이주 커머스에서 집도 없이 절망 속에서 앞으로 곧 닥쳐올 흑심한 겨울 추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미주리주로부터 추방당하여 피난지를 찾아 미시시피 강을 건너 일리노이주로 이주해 왔습니다. 강줄기가 완만하게 곡선을 그으며 흐르는 곳에서 성도들은 아름다운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늪지대였기 때문에 마소가 한번 지나려면 온통 진흙 투성이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늪지대가 성도들의 말할 수 없는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 후에 아름다운 나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839년 당시, 그곳은 살던 곳에서 추방당하여 거처할 집도 없는 수천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인 커머스였습니다. 성도들은 수년 동안 공들여 이룩한 집, 곳간, 교회, 공공 건물, 그리고 비옥한 많은 농토를 남겨 둔 채 쫓겨 났던 것입니다. 더우기 성도들은 못된 폭도들에게 살해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주리 땅에 묻어 놓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미주리주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가 없게 되자 실의와 절망에 빠진 성도들은 미합중국 대통령과 의회에 탄원하기로 결정하고 요셉 스미스와 일라이어스 히그비가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1839년 10월 20일, 말 한 필이 끄는 가벼운 이륜마차를 타고 커머스를 떠나 5주 만에 워싱턴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한 첫날은 투숙할 곳을 찾느라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하이람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가장 짠 여관을 찾았습니다.”(교회 정사, 4:40)

요셉과 일라이어스는 미합중국 대통령 마틴 반 뷰켄을 찾아가서 성도들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탄원 사유는 정당합니다만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지해 주면 나는 미주리의 표를 모두 잃게 됩니다.”(교회 정사, 4:80)

그러자 그들은 의회를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도록 낙담스런 결과만 안은 채로 요셉은 말을 타고 커머스로 돌아왔습니다. 히그비 판사는 그곳에 남아서 탄원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의회는 아무 일도 해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워싱턴에서 그같이 거절을 당했던 1839년부터 교회와 성전이 환영받고 존경받는 1974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러한 관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해 왔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워싱턴 성전에서 보낸 그 아름다운 며칠 동안 생각했던 첫장과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이 첫장과 마지막 장 사이에는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1844년 6월 27일, 저는 뜻이 무더웠던 날 요셉과 하이람의 죽음, 나부의 멸망, 강을 건너 아이오와 지역으로 여행하는 포장 마차의 긴 행렬, 그 가혹했던 1846년 봄 눈과 진흙 속에서의 천막 생활, 미주리의 윈터 쿼터스, 흑사병과 열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 피해, 이전에 성도들의 탄원을 무시했던 정부가 발부한 증원 요청, 엘크 혼, 플래트, 스윗워터와 사우드페이스를 거쳐 솔트레이크 계곡까지를 잇는 무덤의 행렬, 동부와 영국을 떠나 어떤 사람들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 와이오밍에서 겨울을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여행을 계속한 수천 수만의 성도들, 유타산 계곡에서 기다랗게 자란 썩을 뽑으며 농토를 개간하던 일, 건조한 땅에 물을 대기 위해 수마일의 수로를 파던 일, 편견에 찬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성도들에게 보인 태도, 바로 이 워싱턴에서 법을 만들어 연방 정부가 집행한 시민권 박탈 행위 등, 여러 가지 사실들이 서사시적인 역사의 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의 날들을 모두 이겨낸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시련의 불 속을 걸어오는 동안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위하여 그들이 치룬 값은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가며 후대에게 존경심을 심어 준 신앙의 선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좀더 잘 이해하고 인정하는 시대가 온 것에



나부와 커틀랜드 같은 개척기 성전을 잃은 것과 초기 성도들이 거부당하고 박해를 받은 일은 오늘날 교회가 크게 인정을 받고 널리 알려진 것과는 현저한 대조가 된다.

감사드립니다.

호기심으로 워싱턴 성전에 왔다가 감명을 받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생각이었으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속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그 길을 달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것이지만, 숲으로 덮인 언덕 위에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주님의 집의 반짝이는 첨탑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의 머리에는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성구가 떠올랐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16)

이제 모든 성도들은 숨기우지 못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되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범죄 사건에 관련되었을 때, 언론 기관이 그가 몰몬이라는 사실에 신이 나서 보도하는 것을 보고 때때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그가 다른 교회의 회원이었다면 종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대한 간접적인 찬사를 표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계는 우리에게서 좀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정도에서 벗어났을 때, 언론 기관은 이를 무슨 큰 사건이라도 되는 듯이 곧 보도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세상이 모두 보고 있는 산 위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바대로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베드로전서 2:9)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진로를 바꾸지 않고 (또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반면에 우리가 예언자의 가르침을 계속 따른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이 주목할 점점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례로서, 세상의 압력으로 가족의 고결함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현대에 가정을 중히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는 더욱 현저하고 독특하게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 개방 주의가 만연해 가더라도 교회의 교리는 일세기 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이 가르쳐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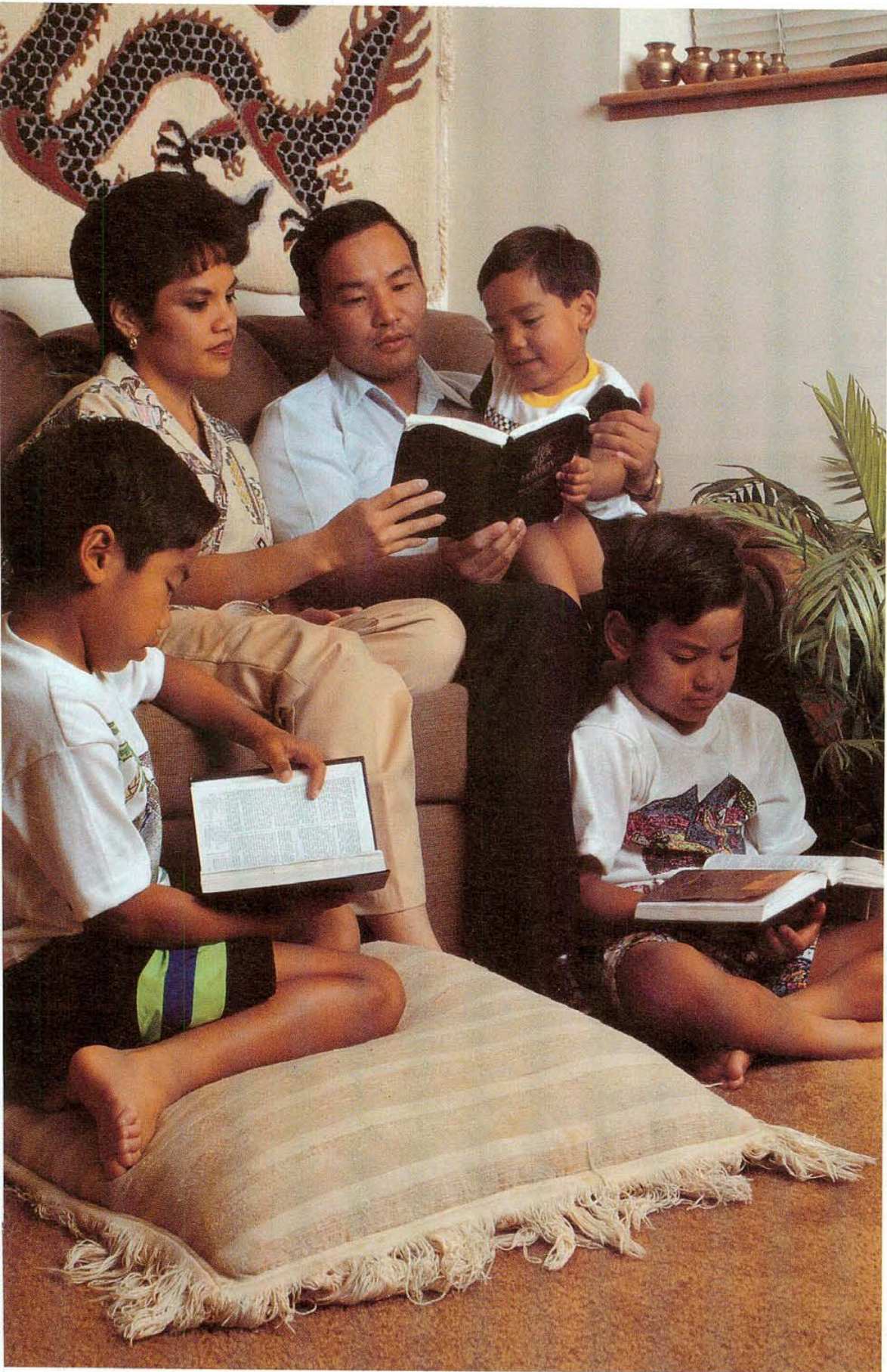
매년 우리의 사회적 관행의 범위 내에서 알콜 음료의 소비와 약물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일세기 전에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표준은 세상 앞에 더욱 더 독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요구를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점점 커감에 따라 교회가 단독으로 사회 봉사를 위해 나서는 것과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교리는 더욱 더 중요시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판매 촉진 및 오락의 날로 바뀌어 감에 따라 시내산에서 주님이 손가락으로 쓰시고 현대의 계시로 다시 강화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욱 특별하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가 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도 없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도 안되며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는 속에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표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추세와는 정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흐름에 굴복하였습니다.

1856년, 서부 계곡에 거의 말일성도들만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말에 대해 대관장단에 계셨던 히버 시 킴블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평화스러운 계곡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때 섞여 하나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얼굴과 성도의 얼굴을 가리기 어려울 날이 오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때에 커다란 타작의 날이 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시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세상의 압력으로 가족의
고결함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현대에 가정을 중히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는 더욱
현저하게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있겠습니까?”(울슨 에프 휘트니, *히버 시 킴볼의 생애*
북크래프트사, 1945년, 446쪽)

그 시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때란 바로 지금이며, 이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사회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업계, 과학계, 정치계, 의학계, 교육계 및 기타 가치있고 생산적인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할 책임과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일을 훌륭히 행하도록 손과 머리를 숙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가족의 고결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하게 되며,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국민성을 파괴하는 외설 및 호색 물결에 대항할 수 있으며 알콜 음료와 마약을 피하고, 그러한 것들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확고하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이 느끼고 같이 손을 잡고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짐을 정부에 미루기보다는 직접 나서서 더욱 잘 도와 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사람들의 자립 정신과 존엄성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안식일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자제할 수 있습니다. 6일간의 평일이 있는 이상 반드시 일요일에 가구를 구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주일에 의류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여 계획한다면 일요일에 식품을 구입하는 일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과 교회에서 가르친 다른 표준을 지킬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되며 그들도 옳은 길을 따를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이사야 2:3)

옳지 않은 일들과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을 해서도 안됩니다. 주님이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켜신 등불은 온 세상의 등불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봄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서 본 모범을 그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오락을 즐길 때까지도 우리 생활의 모범으로 인해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될 산 위의 동네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국가의 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힝클리 부대관장께서는 세상이 그 진로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점점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가 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3. 힝클리 부대관장은 우리와 관계된 “시련”에 관해 언급하십니다. 그는 그 시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4. 우리의 등불을 사람들 앞에 비취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언자를 따름으로써 주님을 기억함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자 매님은 ‘나는 레이먼인 사뮤엘이 회개하라는 외침에 대해 어떻게 응했겠는가? 멸망이 가까웠다는 예레미야의 경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했겠는가? 어린 요셉 스미스의 간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했겠는가?’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각자는 옛날에 예언자들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중 한 사람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기회가 있습니다. 고대에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교회의 대관장을 지지하는 것은 이 시대에 직면하는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신성한 가르침을 받을 분이 바로 그 분이라는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잡지나 기타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예언자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자가 쓰신 메시지를 읽고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기도, 경전 공부, 정직 그리고 그의 일상의 주제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분의 충고를 가벼이 여기지는 않습니까? 고대로부터 경전에는 예언자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경고를 받아들였으나, 그의 이웃들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니파이와 레이먼은 아버지 리하이의 영감어린 권고에 대해 정 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예언자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극적인 결과가 따랐습니다.

약혼자와의 혼약이 깨어진 이후 낙담한 아버가일 모리스는 몰몬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라는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훈계를 따름으로써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읽으면서 벤슨 대관장님의 약속하신 “더 위대한 권세”(성도의 벗’ 1987년 1월호)와 “더욱

더 풍요한 인생”(“우리 종교의 종석 몰몬경’)을 발견했습니다.

“정규적으로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저는 또한 다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아버가일은 말합니다. “제 신앙은 복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제 안에서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분의 계획 안에서 성취해야 할 중대한 역할을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달았습니다.”(엔사인, 1989, 3월호, 37쪽)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별된 예언자를 사랑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오늘날 우리의 예언자를 통해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방문 교사는 방문하고 있는 가정의 자매에게 성도의 벗 대회 보고지에 있는 메시지를 들려 주거나, 대회 보고지를 구입하여 선물할 수도 있다.
2. 현재 살아계신 예언자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주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라는 간증을 전한다.

베르나르트 레프란트

알리스 브루어 새일리





베르나르트 레프란트는 195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그의 집에 미국인 선교사 두 명이 방문하였을 때 처음에는 그들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이것은 그가 태어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그들의 친절함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특이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베르트(몇몇 나라의 친구들은 그를 베르트라고 알고 있음)라고도 불리는 베르나르트는 자신은 이미 수없이 여러 번 그의 목숨을 지켜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다. 베르트는 섬의 밀림에서 사냥하다 맹수에게 물려 죽을 뻔하였으며, 이차 대전 때는 낙하산을 타고 적군의 전선 뒤에 떨어져서 적에게 잡혀 죽을 뻔했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살인자들의 명부에 올라 암살자들에게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베르트의 하나님은 피난민 수용소에 있는 그의 부인과 자녀들의 목숨까지 지켜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새로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는가?

선교사들은 1950년말에 네덜란드에 있는 레프란트의 가정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레프란트의 가족은 1948년에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 베르나르트의 아내 노라는 매우 영적인 여성으로 선교사들이 전해 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회복된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을 견디도록 노라와 그의 가족들을 도와 주셨다. 노라는 물론경을 받았으며, 그것을 읽으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베르트는 선교사의 방문을 알고서 노라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나 장로들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고하게 거절했다.

만일 이들 물론 선교사들과 그들의 책을 받아들이는 일이 단지 용기만 가지면 되는 일이었다며, 당시 베르나르트 빌렐 레프란트보다 더 용기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인 조상을 가진 베르트는 인도네시아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용기있게 대처한 사람이었다. 그의 무한한 체력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멧돼지 잡기 대회에서 맨손으로 멧돼지를 잡아 전국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챔피언이 되었다.

그의 망설임을 무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베르나르트 레프란트는 지성과 교육과 타고난 관대함을 지녔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고 애정이 깊은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다. 베르트는 네덜란드 정부의 세관 관리로 근무할 때 장관의 딸이며, 지성적인 네덜란드계 인도네시아인 학교 선생이었던 노라를 만나 결혼했다. 나중에 그는 네덜란드 해군의 장교가 되었다. 베르트와 노라는 인도네시아 섬의 여러 방언 뿐만 아니라 불어, 독어, 네덜란드어, 영어를 말하는 등 둘다 천부적으로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였다. 이들 부부는 서로 협력하여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독교 교리의 가치를 믿도록 양육했다.

베르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에는 옹고 그른 종교에 대해 그가 가진 명확한 개념이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는 지방의 미신적인 믿음과 교령술 때문에 불편한 기분이었다. 그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를 추구하여 한때는 불교 승려가 될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의 처자식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포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아내의 강한 믿음이 그에게로 전해졌으며, 그는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노라는 물론경을 모두 읽었다. 그리고 남편은 참여하지 않은 채로 선교사들과 또 다른 공부를 끝마칠 무렵, 노라는 영에 압도된 느낌을 느꼈으므로 침례받기를 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을 위해 기다리기를 원했다. 자기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몰래 물론경을 읽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늦은 시간이면 그는 희미한 불을 켜고 새벽 두세 시까지 책을 읽곤 했지만, 다음날에는 밤새도록 잠을 잘 잔 것처럼 가장 했다. 노라는 끈기있게 기다렸다.

그녀는 2차 대전 때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중대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용맹스러웠던 것으로 연합군 사령부와 독일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게 해준 바로 그 용기 때문에 그는 또한 영국인과 함께 낙하산을 타고 일본군 전선 후방으로 낙하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영국 군대에 차출되어 갔으며, 노라는 그의 소재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인도 북메이에 위치한 전후 난민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4년 동안이나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하자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946년 어느 날 노라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와 교실 뒤에 서 있었다. 베르트였다. 영국군과 함께 임무를 받아 싱가포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난민 수용소 목록을 조사했던 것이다. 가족과의 기쁨에 찬 재회를 한 후 그는 또 다른 임무를 띠고 사일론(스리랑카)으로 갔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였으며, 그 임무를 마치고 나서 그들은 인도네시아로 돌아왔다.

베르트는 남몰래 물론경 읽기를 계속했고, 심지어 문 뒤에서 선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자신이 장로들과 이야기하기로 동의했을 때 그는 모든 교리적 논점에 대해 성경상의 증거를 빈번히 요구하고 일년간에 걸친 토론을 요청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구도자로 알려졌다.

그 동안 노라와 딸 베르티가 침례를 받았다. 노라는 이 기쁨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뉴기니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새로운 교회에 대해 알리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불과 며칠 후에 그녀는 그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소인에 찍힌 날짜를 보니 서로 같은 시기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 친구는 바다에서 물론경이라는 낯선 책 한 권을 발견한 뉴기니아의 어부에 관한 이야기를 써 보냈다. 그 친구가 레프란트 가족이 이 책이나 요셉 스미스에 대해 좀 알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면. 물론 이다. 레프란트의 친구들은 그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썼다. 그들은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론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격려했다.

친구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배워 왔던 베르트에게 그들의 간청은 좋은 영향을 주었다. 1946년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 온 그는 정치적으로 혼란에 처한 나라로 돌아온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은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는데, 베르트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네덜란드 장교였으며, 민족주의자들인 저격범을 추적하여 살해하라는 임무를 받은 터였다. 그는 그들을 붙잡았지만 목숨을 살려 주어 그의 집 정원에서 일하게 했다. 민족주의자들이 정부의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예전에 베르나르트 집의 “정원사”였던 한 사람이 정부 관리가 되어



베르나르트 빌렘 레프란트가 여행하며 살았던 다른 나라에서처럼 네덜란드에서도 그가 뿌린 많은 씨는 열매를 맺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국제적인 개척자요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레프란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베르트가 네덜란드인을 지지한 이유로 총살 대상 명단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열흘 후 레프란트 부부와 그들의 세 자녀는 네덜란드로 가는 배를 탔다.

베르트가 마침내 더 높은 차원의 복음 진리에 저항하기를 포기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였다. 어느 날 장로들과 토론을 하던 중 베르트는 성경을 테이블에 놓더니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밖에 또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군요.”라고 그는 말했다. 베르트는 1952년 3월에 침례받고 일년도 채 못되어 헤이그 지부의 지부장으로 부름받았다.

정글과 적진에서도 끈기있게 버티고 결의가 굳었던 베르나르트 레프란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찾았다. 베르트와 노라는 네덜란드에서 뿐만 아니라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전군을 하였던 뉴기니아에서도 충실한 성도이자 개척자의 역할을 했다. 그곳에서 레프란트 부부는 그들의 가족과 뉴기니아에 주둔한 다른 두 회원을 위해 자기 집에서 주일학교와 성찬식 모임을 가졌다. 베르트는 다른 해군 장교들에게도 복음을 소개했으며, 매월 지역의 사제 및 교회 성직자들과 모임을 가져 복음의 회복과 물문경에 관해 가르쳤다.

베르트와 노라는 그들의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모범으로 보임으로써 가는 곳마다 공명정대하고 관대하며 너그럽다는 평판을 받았다. 베르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에 관해 열성적으로 이야기했으며, 뉴기니아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양의 교회 서적과 소책자를 기부하였다.

레프란트 가족은 1956년 네덜란드로 돌아와 이번에는 암스테르담으로 가게 되었으며, 베르트는 그곳에서 또다시 지부장으로 부름받았다. 1960년 헤이그로 다시 이사한 후 베르트는 유럽에서 최초로 조직된 스테이크인 네덜란드 헤이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 부름받았다. 그가 이러한 부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였으므로 그의 자녀들인 프랑크 코넬리우스, 베르티 루이제, 에릭 헤라드 및 로버트도 그것을 언제나 느끼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은 참된 일꾼이었고 진실한 개척자였습니다. 두 분은 언제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베르티(책 피 판 아우트호이스텐 부인)는 회고한다.

1971년 8월 노라가 죽었을 때 버스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었다. 베르나르트의 장례는 1985년 1월에 있었는데 하도 눈보라가 심하여 그날 매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풍풍 얼어붙는 날씨 속에서도 그들의 친구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왔다.

베르나르트 빌렘 레프란트가 여행하며 살았던 다른 나라에서처럼 네덜란드에서도 그가 뿌린 많은 씨는 열매를 맺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국제적인 개척자요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

알리스 브루어 새일리는 남편과 함께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며, 그랜뷰 프로보 스테이크 그랜뷰 제2와드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1952년 네덜란드에서 미국 대사관의 무관 비서로 일할 때 개종한 지 얼마 안된 베르나르트와 노라를 만났다.





마음으로 들음

앤 시 브랜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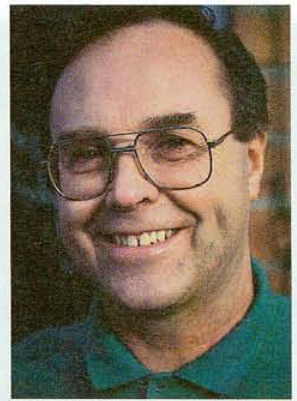
전 혀 들을 수 없는 세 명의
사랑스러운 젊은 자매들이
어떻게 확신과 기쁨에 차서
말씀을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끈기있는 신앙과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부모 형제 및
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자상한
보살핌에 있다.

벨포스트 북 아일랜드 스테이크의 방거
지부 회원인 퍼거슨가의 자매들인 23세의
데보라와 18세의 줄리안 그리고 15세의
히더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가
있었다. 다른 2명의 자매인 22세의
아만다와 20세의 게일은 부모인 피터와
릴리안처럼 정상적인 청력을 가졌다. 그
자매들의 조부모도 그들처럼 날 때부터
농아였다.

하지만 이 특별한 가족들에게 의사
소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을
신뢰하고 확고한 결의를 가짐으로써
그들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데보라(작은사진), 줄리안 그리고 히더
퍼거슨은 다른 사람들이 귀로 듣는 것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할 때에는
여러 가지 대화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데보라가 성취한 많은 것들에서 그러한 증거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녀는 낙천적인 성격과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열성으로 청각 장애를 극복해 냈다. 데보라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를 졸업한 후 교회 스카우트 프로그램에서 지도자로 봉사해 왔다.

데보라가 어렵게 획득한 상들 가운데는 축구나 배드민턴, 스쿼시 그리고 수영 같은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서 받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트로피들이 있다.

“우리가 무도회를 열었을 때 데보라는 박자를 가장 잘 맞추었으며 음악에 맞추어 완벽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청녀 회장인 게디스 자매의 말이다.

그에 대해 데보라는 이렇게 설명한다.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마루를 통해 전해지는 진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남들처럼 춤을 출 수 있어요.”

춤든 공부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데보라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막을 장애는 없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저는 꼭 봉사하고 싶으며, 또 다른 청각 장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데보라의 여동생인 아만다도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 그녀는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가족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아 왔으며 그래서 그녀보다 덜 행복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현재 대학에서 3년 과정의 수화 교육을 받고 있으며 후에 통역하고 가르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농아인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큰어머니, 큰아버지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어요.”라고 아만다는 말한다. “그분들이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진리를 배우도록 도와 드리고 싶어요”

배우는 것은 게일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세미나리는 더욱 그렇다. “세미나리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경전상의 인물들이 겪는 경험을 읽을 때 저는 가족들과 그들이 현재 보여주는 노력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게일은 아이들을 다루는 데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동생들의 ‘귀’ 역할을 해 오면서 그녀는 인내심과 친절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예민하게 알아내는 감각을 키워 왔다.

매년 줄리안과 히더는 이 주의깊은 귀와 여러 달씩 떨어지게 된다. 그들은 집과 가족을 떠나서 영국 뉴베리에 있는 농아들을 위한 유명한 메리 힐 영국 문법 학교에 참석한다. 그 학교의 기준에 의하면 한 명의 학생이 이 특별한 학교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대단한 성공인데 한 가족에서 2명이 다니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셈이다.

“아이들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어려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위안과 확신을 얻었습니다.”라고 퍼거슨 형제는 말한다.

“우린 일 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부모와 학생과 통역자 사이의 3자 대화 방식이 가능한 특별한 전화가 있으므로 집으로 부터의 도움 없이도 어떤 문제를 오래도록 안고 있지는 않았어요.”라고 줄리안은 말한다.

“뉴베리 지부의 윌리엄 형제님과 자매님이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를 교회로 태워다 주셨어요.” 히더의 말이다. “우린 무척 즐거웠어요. 회원들과 있으면 아주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구세주와 그의 교회에 관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아주 좋아요. 저는 세미나리 가정 학습을 하고 있는데, 제게 항상 도움이 돼요.”라고 줄리안은 말한다.

게일과 아만다(왼쪽 끝)는 그들의
 자매들을 위해 세상의 음성들을 통역해
 주는 일을 돕는다. 한편, 그들의
 부모님인 피터와 릴리안 퍼거슨 부부는
 딸들 모두에게 그들이 하늘에 계신
 부모님들과 지상의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준다.

“때때로 성찬식에서 연사들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제게 말씀을 적어 주지만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듣기엔 연사들의 말이 종종 너무 빨라요.”

그렇지만 두 소녀 다 독순술에 능하다. 그들은 또한 보청기를 이용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인 프랑스어도 배우고 있다. “어려워요.” 히더의 말이다. “정상적인 청각을 가진 학생들보다 더욱 열심히 집중해야만 해요.”

악보를 읽는 것은 유아 시절부터 그들 생활의 일부였다. “어머니는 찬송가를 통해 어떻게 음의 높 낮이에 주의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라고 줄리안은 말한다. “회원들의 노래 소리가 피아노 소리 보다 더 크지 않으면 저는 그 박자를 느낄 수 있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리코더를 연주해요.” 히더의 설명이다. “저는 발과 다리를 통해 소리의 진동을 느껴요. 그리고 많은 연습을 통해 그 곡조를 바르게 연주해요. 이곳에는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줄리안과 히더 그리고 데보라는 그들의 재능을 사용해서 청각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어떤 경우는 이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성취하고는 있지만 때때로 그들의 장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내게 아주 친절히 말을 걸 때 나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팔을 크게 휘저을 때는 아주 난처해요. 마치 내가 바보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하고 히더는 말한다.

줄리안도 동감이다. “예. 정상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서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며, 또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시선을 받지 않는 것이 좋아요. 종종 사람들에게 ‘저도 당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저를 두려워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엔 마음이 상하고 우울해져요.”

“맞아요”히더가 덧붙인다. “사람들이 제게 질문할 때 항상 금방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들에게 되물으면 그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리곤 가버리죠! 그들이 다시 말해 주려 노력한다면 우린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을텐데요. 저는 단지 ‘안녕’이나 ‘어떻게 지내요?’같은 짧은 대화는 싫어요.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 적절하고 긴 대화가 좋아요. 표정과 느낌이 들어간 진짜 대화말이에요.”

청각 장애로 말미암은 고독감 때문인지 세 소녀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저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많은 시간 동안 대화합니다.”줄리안의 말이다. “저는 성신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꼈으며 제가 받은 격려에 늘 감사드려요. 우리는 연차 대회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높은 표준을 지키는 것과 그릇된 표준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는 동안 저는 내부에서 성신이 그것은 중요한 권고라고 증거해 주는 아주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울고 싶었어요. 전 그 특별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퍼거슨 가족에게서도 다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사야 29장 18절에 예언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퍼거슨가의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귀와 눈과 손 그리고 마음으로 들으려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잘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

모범 가족이

윌리엄 지 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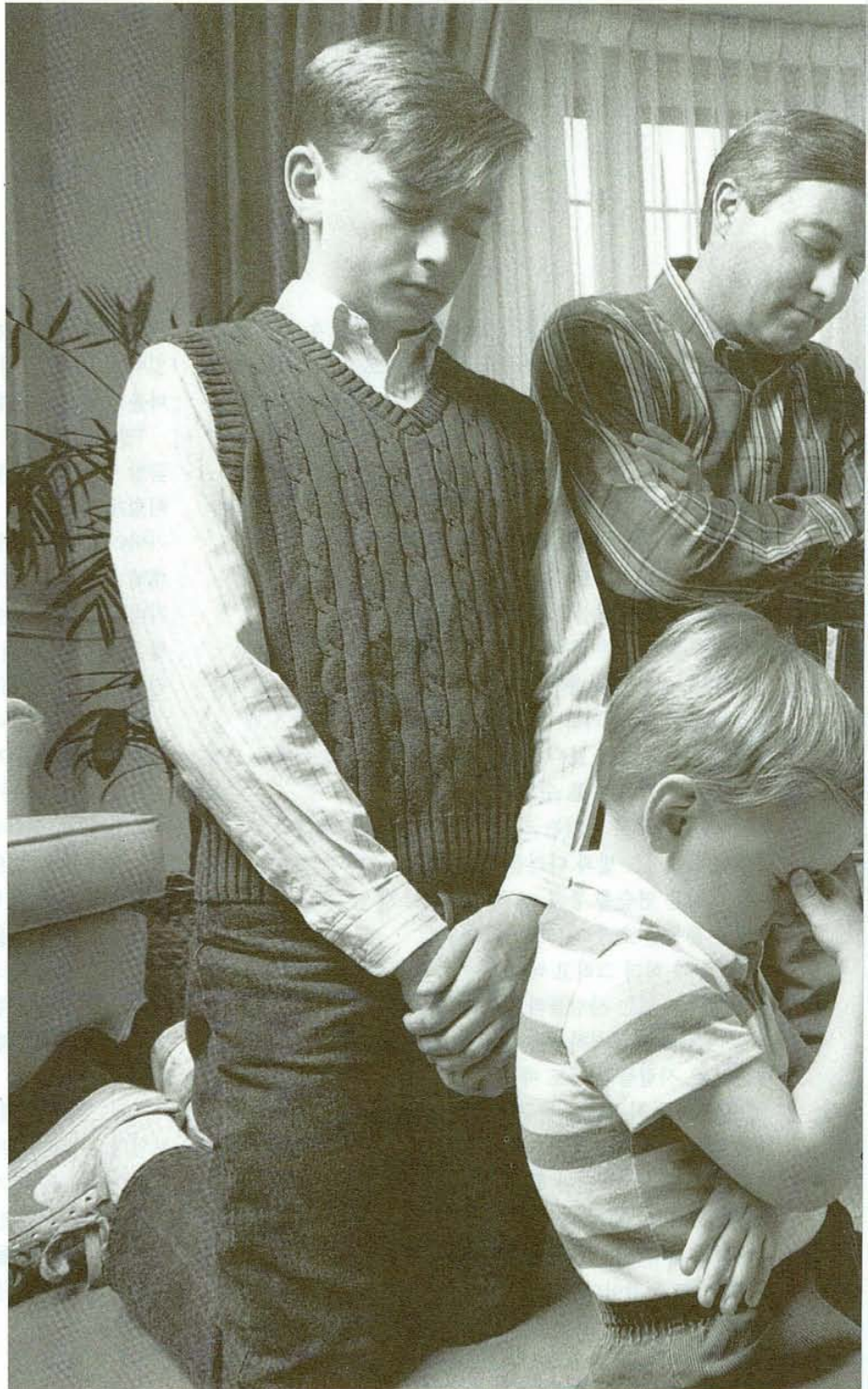
모범적인 가족은 사랑과 칭찬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 가족들의 특성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다.

한 연구 보고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말일성도들이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가족에 관한 요즘 보고서의 대다수에는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 즉 이혼, 배우자나 자녀 학대, 약물 사용, 근친상간, 자살 등 강조되어 있다. 그러한 질문에 접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다. 유대가 강하고 모범적인 가족이 존재하는가? 만일 있다면, 무엇으로 인해 것처럼 성공할 수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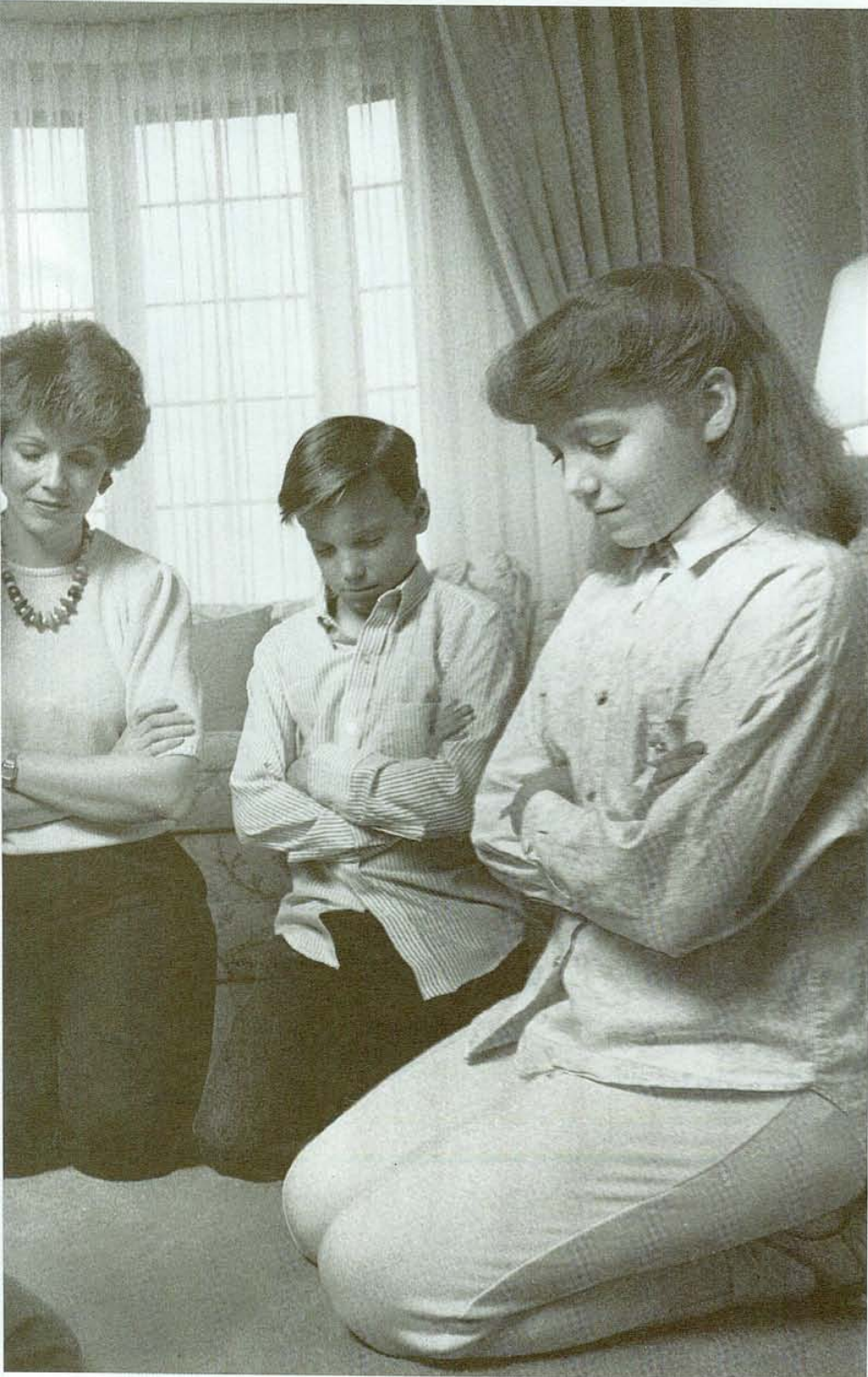
우리는 모범적인 말일성도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연구 조사를 했다. 우리는 미국내의 여러 지역 스테이크 부장들에게 그들 스테이크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자랑할 만한 가정을 열다섯 가정씩 뽑아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이 미국내에 있는 가족들이긴 하지만 이들 가족에게서 밝혀진 기본 원리들은 전세계의 말일성도 가족들이 모두 같다.) 후에 인터뷰를 해본 결과 선정된 200가족 대부분이 교회에서 아주 활동적이고 헌신적이었으며, 부모와 자녀간에 유대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대상으로는 적어도 한 자녀가 집에서 같이 살며, 그러나 적어도 한 자녀는 결혼할 연령, 선교사로 나갈 연령, 또는 대학에 진학할 연령이 된



되기 위한 열쇠

필립 피 쿤츠



가정으로 제한하였다. 조사한 내용과 집견 내용을 분석한 후 우리는 모든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12가지 조항을 발견했다. 실제로 모든 가정이 놀라울 정도로 이 모든 조항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다. 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서로 다르기는 했으나, 이 모범적인 가정들은 어떤 기본적인 범위안에서는 주목할만큼 유사점을 보여 주었다.

1.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한다.

어떤 점에서 이 부부들은 그들의 가족이 교회에서 활동적이고자 하는 결심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부들이 교회에 대해 세운 결심은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① 교회 모임에 참석함. ② 완전한 십일조를 바침. ③ 교회 직책을 기꺼이 받아들임. 이 요소들은 거의 모든 가족에게서 발견되었다.

어느 가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품고 있는 훌륭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자녀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한 후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분께 의지합니다. 우리는 더 큰 집이나 또는 다른 재산을 얻으려 힘쓰는 것보다 자녀를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이 없어도 지낼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 성전 결혼, 그리고 가족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범적인 가족에겐 목표가 있다. 엘리스 엘드리지와 어머니 요시 아키토모 엘드리지는 둘다 성공적인 음악가이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고 믿는다.

이 가정들의 73퍼센트가 항상 또는 통상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기도를 이따금씩 한다고 대답한 많은 가정들은 가족들 개개인의 일정으로 인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한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가족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이 각기 일정이 다르므로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집에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나 일요일엔 항상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족들의 일정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가족이 함께 가정의 밤을 하거나 함께 경전을 읽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조사 대상 중 66퍼센트가 항상 또는 통상적으로 매주 가정의 밤을 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나머지 삼분의 일은 때때로 함께 모였다.

매일 경전을 읽는 것에 관하여는 약30퍼센트만이 실행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0퍼센트는 가끔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부부들의 종교에 대한 결심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 그들의 종교적인 결심 뒤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종자이다. 세계 제2차 대전과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사 대상 가족의 가장들 중 선교 사업을 행한 사람은 절반도 안되며, 신학 연구원을 졸업한 사람의 숫자도 채 절반이 안된다. 20퍼센트 이상이 8세 후에 침례를 받았다. 물론 이 부모들 중 많은 수가





활동적인 말일성도 가족 출신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교회의 회원이었으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중요한 전통을 갖고 있었다. 나머지 부모들은 일부만 회원인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활동이 저조한 회원 가정 출신이었으며, 말일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성장한 후에 교회에 속한 부모들도 있었다.

2. 그들은 가족간에 사랑과 화합을 보여 준다.

교회가 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다음으로 이 가족들은 사랑과 화합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한다. 한 가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서로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며 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 대부분의 가족들이 성취한 가족간의 사랑과 지지와 화합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노력함으로써 얻은 결과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형제 자매가 참여하는 활동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를 지지하도록 격려한다.

가족들이 서로 밖에서 하는 활동을 도와 주는 외에도 이들은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놀기도 한다. 가능하다면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갖는 것도 서로 단합하는 데 좋은 경험이 된다.

3. 그들에게 목표가 있다.

이 가족들은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는 듯하다.

모든 참가자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원한다고 말했다. 즉, 훌륭한 교육·성진 결혼·자기 가치관 및 훌륭한 자아상·가족 화합·교회에의 헌신·선교 사업·훌륭한 시민 정신이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가족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토론하며, 자녀들은 일찍부터 선교 사업과 교육 및 성진 결혼을 계획한다. 어린 자녀들조차도 이 목표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

4. 그들은 가르치고 대화를 나눈다.

이 부모들은 자녀와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어느 부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부부가 서로, 또한 자녀와 함께 서로의 생각과 느낌과 문제점, 목표, 마음 상하는 일들 그리고 즐거움에 대하여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되어왔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하는 동안에도 함께 대화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우리는 종종 식탁에 앉아서 한 시간 동안이나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서적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 서로에게 소리내어 읽어

주거나 또는 농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의 일부로서 이들은 고전 문학, 자서전, 시 등의 훌륭한 서적을 자주 읽는다. 더우기 이 가족들의 97퍼센트가 교회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이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 비율은 국민 전체 평균의 반도 안된다. 그들 가정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하고 있는지 물어 보았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들이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지침을 주면 자녀들이 그들을 따를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느 부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 자녀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뉴스 보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뉴스를 보고 그날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토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5. 그들은 규칙을 많이 세워 두고 있지 않으나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가족들이 다음 세 가지 규칙을 갖고 있다. ①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해 준다. ② 행선지와 귀가 시간을 부모님께 알린다. ③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한다.

자녀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터득해 간다. 한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의 한 친구가 일요일 오후에 함께 영화관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싫다고 대답하자 그는 이유를 알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규칙 가운데 하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갑자기 그것이 저희 규칙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저희 가족 규칙이라고 언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희 가족이 결코 하지 않는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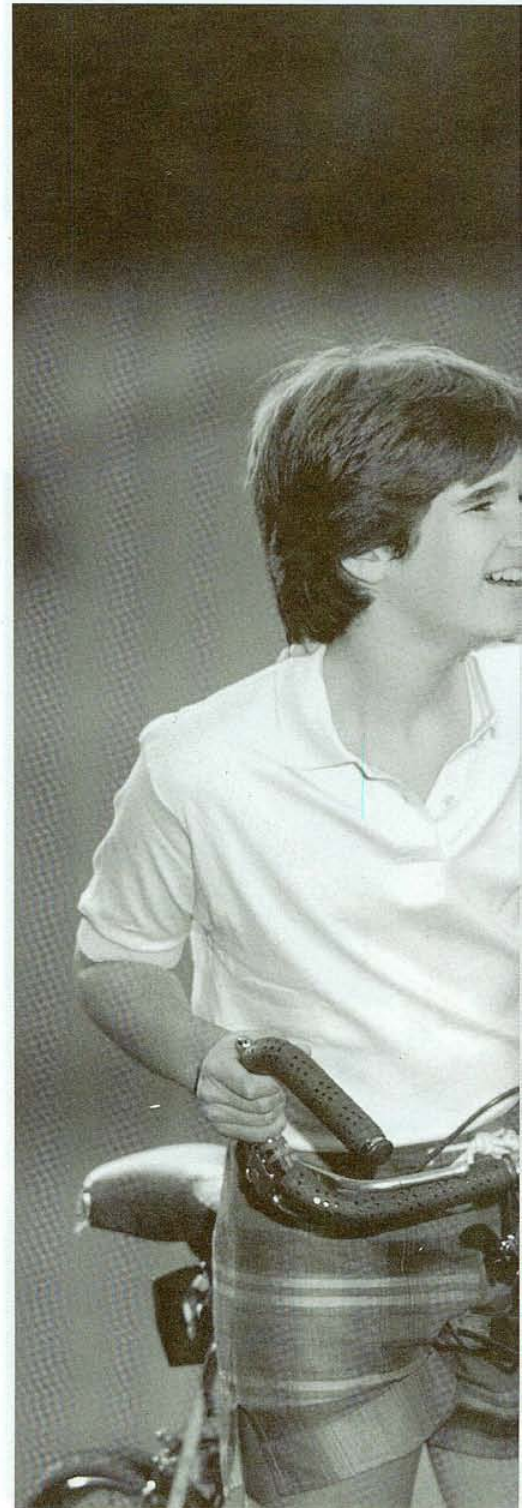
6. 그들의 규율은 엄격하지만 또한 공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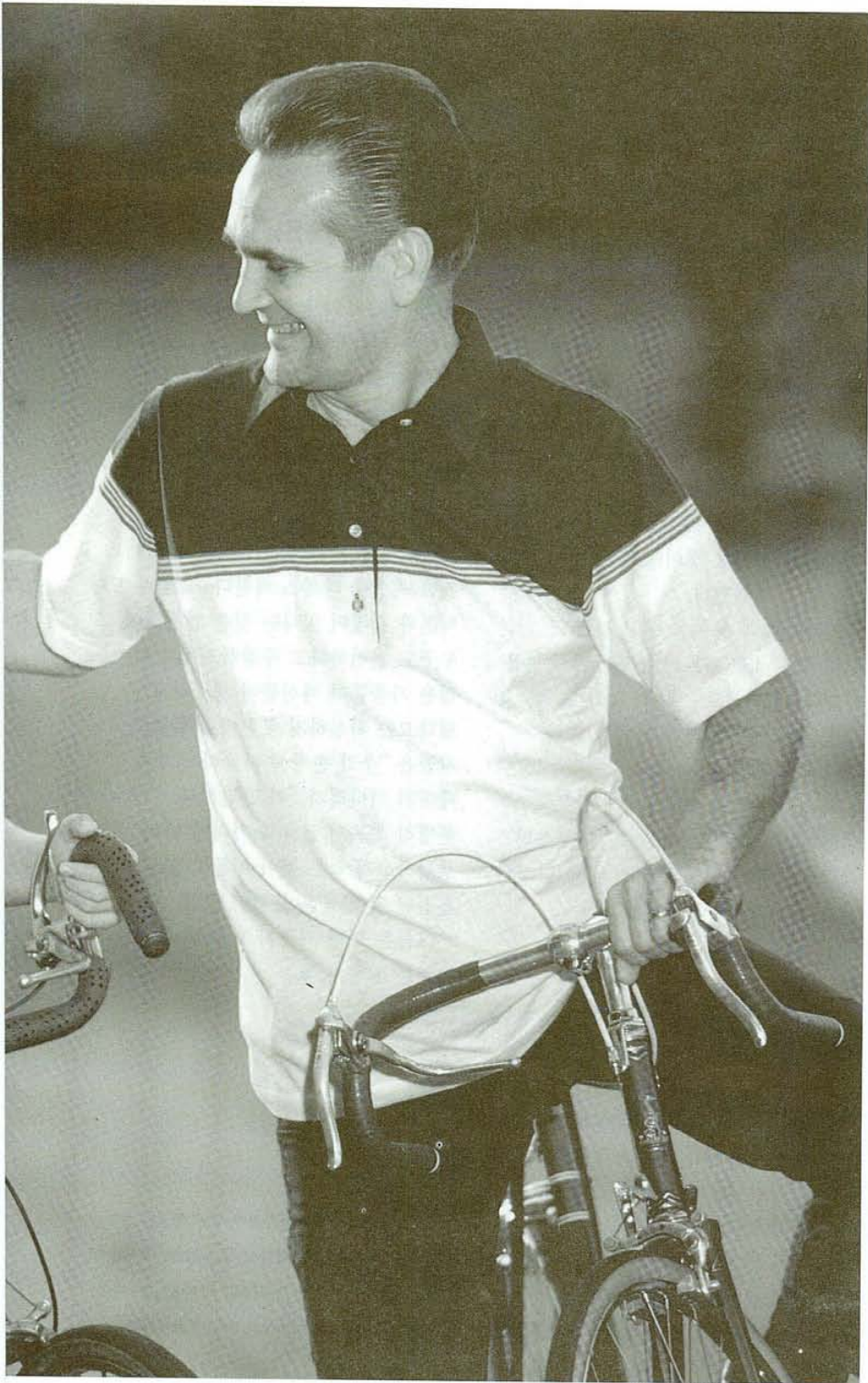
이 부모들은 처음에는 대화로 훈계한다.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부모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낀다. 처음에 취하는 조치로는 97퍼센트가 자녀를 설득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대화가 결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그들은 어떤 특권을 박탈한다. 좀 어린 자녀들에게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 아이를 때리기도 한다. 그러나 45퍼센트는 자녀들을 한번도 때린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불순종한 행위에 벌을 가하는 대신, 자녀들이 올바르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 칭찬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강화와 보상의 방법을 사용한다. 순종에 대한 댓가로 칭찬을 하거나 기타 특별한 보상을 한다.

7. 그들은 사랑을 표현한다.

이 가족들은 사랑과 칭찬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다음은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자주 쓰는 방법들이다.

(1) 가족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다.

(2) 그들을 돕는 일을 한다.

(3)껴안아 준다.

(4)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한다.

(5)입맞춤해 준다.

(6)생활 필수품을 제공한다.

우리의 조사 대상 가족들은 사랑과 감사를 대부분 칭찬을 하던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또는 봉사를 함으로써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인터뷰 결과 이 가족들이 관용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안아 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8. 그들은 역경 중에 서로에게 힘을
돋구어 준다.

아마도 이 모범적인 가족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문제에 접했을 때 함께 끌어당겨 주는 방법일 것이다. 이 가족들 모두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역경에 굴복당하기 보다는 오히려 모두 다 발전한 것처럼 보였다. 이 가족들 대부분은 실제로 그들의 문제를 역경으로 규정짓지 않았다. 어느 아버지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아들 중 한 명이 가출했으며, 막내 딸은 암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아들은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며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에 동업자가 저를

빛더미에 남겨둔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역경에 대처한 방법도 우리가 조사한 다른 많은 가족들과 비슷했다. 이럴 때 그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신앙을 행사하였으며, 역경에 대해 나갈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인내심을 키웠으며, 자녀들을 함께 불러 모아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9. 그들은 친척을 돕는다.

이 가족들이 도움을 주는 대상은 직계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모범적인 가족에 속한 사람들은 고모나 삼촌, 사촌, 조부모님 등 가까운 친척들이 그들과 함께 살든 아니든 관계없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부모들의 84퍼센트는 자녀들이 사귀는 친구들 또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이며,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주로 가정에서 하는 활동에 그들을 초대함으로써 그 친구들에게 감화를 주었다고 말했다.

10. 그들은 가정이 바쁜 곳을 안다.

이 가족들은 모두가 가정, 직장, 학교 및 여러 가지 교회 활동으로 매우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 가족들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서로 돕기 위해 노력했다.

자녀들은 소년단이나 걸스카우트 활동에 자주 참여했으며 그 다음으로 운동과 기타 학교 활동에도 열심히 참가했다.

11. 그들은 일을 한다.

이 부모들은 대부분 그들 자녀들이 집안 일들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자녀들의 근로 습관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들 중 77퍼센트의 가족이 자녀들이 가사일을 한다고 말했다. 가장 적게 일을 하는 그룹은 가정에 살고 있고(주로 귀환 선교사들),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든 자녀들이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60퍼센트가 자녀들이 그들의 일을 기꺼이 한다고 말한 것이었다. 나머지 40퍼센트의 응답자들은 자녀들에게 가정일을 시키는 것이 때때로 어려운 문제라고 대답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에 관해서는, 43퍼센트의 부모들이 용돈을 주었고, 57퍼센트는 주지 않았다. 이 가족들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40퍼센트 이상은 자녀들에게 준돈의 대가로 일할 것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일할 나이가 되면 밖에 나가서 작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12. 부모는 서로 사랑하고 지지한다.

200가정 모두 남편과 아내의 전통적인 역할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봉급 생활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아내들도 상당수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정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아내들이 지고 있었으나, 부모가 모두 자녀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

한 부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오래 전에 사랑하게 되었고, 이 생과 다음 생을 함께 협력하며 같이 살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으며, 해를 거듭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사랑도 깊어 갔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자 매우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나 우리는 잘 견디어 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자녀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느낌을 표현하며, 함께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주님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들은 훌륭한 가족을 꾸미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들은 모두 약점과 결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누구도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많은 가족들이 자신들이 성공하고 있다고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의 표준과 가치에 따라 생활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본질인 것 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들은 또한 가족이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

브라감영 대학교 경영 대학원의 명예 학장인 윌리엄 지 다이어는 브라감영 대학교 제 1스테인크 부장임. 필립 알 쿤츠는 브라감영 대학교 사회학 교수이며 프로보 에지몬트 남 스테이크, 에지몬트 8와드 지역에 살고 있음.

말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

때 때로 여러분은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부탁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재미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좀 불안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다음은 성공적인 경험을 위하여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단계입니다.

1. 주제를 선정한다. 또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여러분 자신 뿐만 아니라 회중들의 관심과 요구 사항도 고려한다.

2. 목적을 파악한다. 그 주제에 관해 말씀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3. 주제를 연구한다. 주제를 뒷받침해 주는 성구, 이야기, 인용문, 실례, 통계 자료, 간증등을 모은다.

거울 앞에서 말씀 연습을 한다.
연습을 하면서 회중들의 반응을 상상해 본다.

4. 자료를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편성한다.
가. 경전 구절이나 이야기, 실례, 질문 또는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제를 소개한다.

나. 말씀의 목적을 밝힌다.

다. 설명을 하거나 보기 또는 실례를 들어가며 말씀의 목적을 뒷받침해 주는 각 견해를 전개한다. 말씀을 하도록 지정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부연 설명한다.

라. 요점을 알기쉽게 표현하고 반복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5. 미리 연습한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줄 것을 요청하거나 거울 앞에서 연습한다. 연습을 하면서 회중의 반응을 상상해 본다.

이렇게 하고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면 좀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가장 훌륭한 장소

앤 램턴

로 쇼 나까무라에게 희생이라는 단어는 고생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영적으로 받은 것들로 인해 최상의 기쁨을 느낀다.

나까무라 형제는 동경 성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퇴직할 때까지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심장 외과 의사였다. “제가 퇴직할 때까지는 10년이 남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제 아내와 저는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퇴직을하기로 결정을 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까무라 형제는 언제까지나 심장 외과 의사로 머물기를 원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까무라 형제는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나까무라 형제는 1956년 구마모토 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동경 여자 의과 대학을 방문하여 심장 외과 수술이 행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에 매우 감명을 받아 심장 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5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다. 그 기간 중 그는 연구 목적으로 뉴욕시를 방문했다. 일본을 떠나기 전 나까무라 형제의 한 친구가 이르기를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와 아름다운 몰몬 성전을 구경할 수 있도록 미국 횡단 여행을 권했다.

나까무라 형제는 그때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 친구의 말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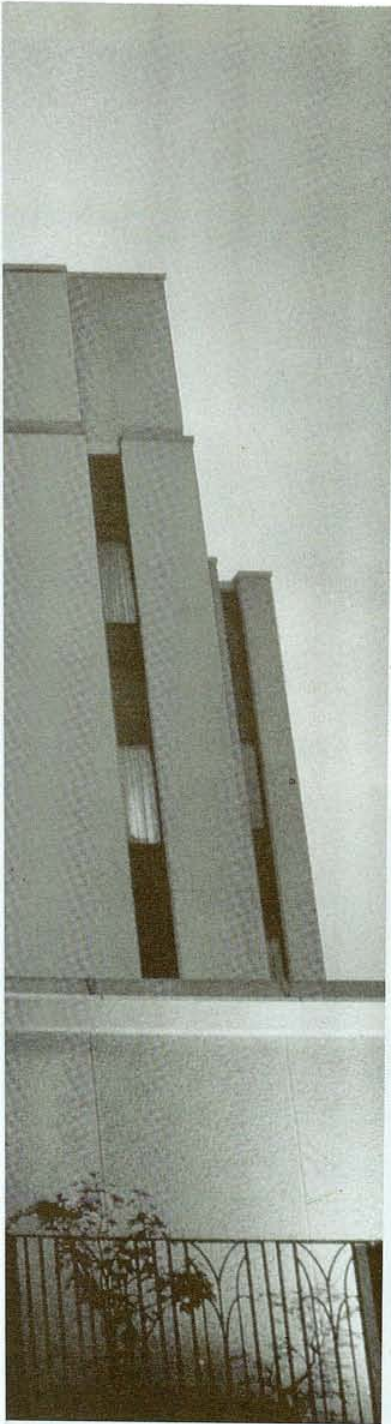
“1971년 4월 젊은이 두 사람이 구마모토에 있는 저의 집에 와서, ‘저희는 몰몬입니다.’라고 말하였을 때 저는 제 친구가 솔트레이크시티와 몰몬들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의사인 저는 종교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고 관심이 갔습니다. 저는 부처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을 처음 대했을 때, 그들의 첫 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들은 겨우 20살이었으나 매우 친절하고 존경할만한 태도를 지녔으며 깊이 생각할 만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전해야 할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아마 그 장로들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나까무라의 가정을 계속방문하였으며, 온 가족이 선교사 토론을 들었다. “선교사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나까무라 형제 부부는 성전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



제 자녀들 중 하나가 정확하게 응답하곤 했습니다.”라고 나카무라 형제는 회상한다.

“선교사들이 질문할 때마다 자녀들은 진리와 일치되는 대답을 하는 반면, 왜 저희의 대답은 좀 모호하고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내와 저는 궁금히 여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녀들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나카무라 가족은 가족을 강조한 점에 특별히 감명을 받았다. “가족은 가정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라고 나카무라 형제는 말한다.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저의 가족이 훨씬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1971년 7월 나카무라 가족은 침례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나카무라 형제는 그의 첫번째 심장 외과 수술을 수행했다. 나카무라 형제는 당시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마치 주님께서 저의 두려움과 염려를 거두어 가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만약 심장 외과 의사가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특별한 능력이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카무라 형제는 교회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성전에서 인봉받고자 하는 생각과 그 신성한 건물에서 주님을 섬기고자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랐다. 1973년(동경성전에서 헌납되기 7년 전) 나카무라 가족은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인봉받고자 캘리포니아로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성전으로 여행하는 중에 그들은 비행기편을 거의 놓칠 뻔 했으며, 더욱이 그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안전한 여행을 원하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나카무라 형제는 그 여행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고 말한다. “그 다음으로 저의 주된 목표는 성전에서 특히 제 아내와 함께 봉사하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나카무라 형제 부부는 성전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

나카무라 형제는 선교 사업 부름을 받기 전에 직장 일과



을 뜻 할 때의 코무이 이 뜻 할 때



나카무라 가족은 함께 모이기를 좋아한다. 나카무라 형제 부부, 딸 마사미 시치조와 시위 노리아키 시치조 그리고 외손자 아이리 시치조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에는 나카무라의 아들 이쑤시가 빠져 있음)

수술복을 입고 있는 나카무라 박사



교회 일로 매우 바빴다고 말한다. 그는 병원 원장으로서 그리고 그가 또한 강사로 임직했던 간호 학교의 교장으로서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또한 선교부장단 보좌 및 지방부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로부터 밤낮없이 많은 전화를 받았으며,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성전에서는 한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가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것은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내에서는 어느 한 곳도 평화롭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 일상 생활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신하여 성전 의식을 행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40)고 말씀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교회 직책에 열중하면서 저는 많은 날들을 밤낮으로 집을 비웠기 때문에 아내는 외롭게 지냈습니다. 이제 저희는 경건한 장소에서 항상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제 선교 사업 기간을 거의 마친 나카무라 형제는 이전의 직업을 다시 갖기를 원하지만 그가 전에 일하던 국립 병원 대신 연로한 연금 생활자들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성전 사업 역시 선교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나카무라 형제는 말한다. “그것은 봉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자 일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는 데 가장 훌륭한 곳입니다.”*

아무도 내가 한 것을 보지 못했어

메리안 이 플린트

아 리조나에 있는 집을 떠나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갔던 여행은 나에게서 모든 면에서 훌륭한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특별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증이 강화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사흘을 머문 뒤 돌아 오는 길이었는데, 나는 현지에서 빌린 차를 몰고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뜻하지 않게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차가 손상된 데는 거의 없었다. 다른 차의 페인트 칠이 약간 벗겨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변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과 지갑에 남은 돈이 4달러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 때는 밤 늦은 시간이었으므로 나와 동행한 친구 외에는 아무도 그 사고를 보지 못했다. 호텔방으로 걸어 들어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런 일이야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일까지 신경을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차가 크게 손상된 것은 아니잖아.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거야. 돈도 다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자동차 전체를 칠하겠다고 수백 달러를 나에게 청구하면 어쩌란 말인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아무 수습도 하지 않은 것이 옳은 행위였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청하기 위해 즉시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그런 일을 승인해 달라고 청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나는 얼른 주님께 내가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구했다.

응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나는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다. 나는 즉시 무릎을 펴고 일어나 내가 일으킨 사고와 손상을 입은 부위가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호텔 방 번호도 적어 놓고 나에게 연락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리고는 주차장으로 나가 그 쪽지를 손상 당한 자동차에 끼워 놓았다. 결과는 중대하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밤 나는 편안히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 매우 인상이 좋은 한 남자가 손에 그 쪽지를 쥐고 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곧바로 나에게 차에 입힌 손상은 전혀 염려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더우기 그는 누군가가 그 쪽지를 남기는 번거로운 일을 한 것에 놀랐으며 한편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다.

나는 “정말입니까?”라고 질문하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해서 나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고는 나갔다.

내가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결코 그 남자에게 한 잘못을 보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달 후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에서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마음의 평화 외에도 다른 보상을 받았다.

“뉴질랜드에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과 똑같네요.”라고 나는 이미 그 일에 대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다. 큰 딸이 나에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때가 밤늦은 시간이었고 더우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방으로 가버렸었다고 말했다.

딸은 나를 것처럼 신뢰하는 것을 보고 나는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실수를 회개했던 것에 대하여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저 세상에서 회개하는 대신 이 세상에서 회개하는 것과는 같았다. 피해를 입은 남자와 차가 모두 그곳에 있었기에 나는 배상을 위한 행동을 신속하게 취하고 내가 해야 할 바를 간단히 그에게 물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만일 내가 나중에 회개하려 했다면 결코 배상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와 심사숙고를 통하여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을 것이므로 그 과정은 좀더 길어지고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내 과오를 곧바로 회개함으로써 내 자신과 딸을 실망시키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다.*

메리안 이 플린트는 메사 아리조나 서 스테이크, 앨마 제5와드 지역에 살고 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잭 엠 리온

주님은 자원 관리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님은 자원 관리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번은 예수님이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누가복음 16 : 11) 즉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재물을 관리하는데에 성실하지 않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하늘의 부를 주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으나, (누가복음 16 : 13참조)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재물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는지 배울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경전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모범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1.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늘 알고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분치 않아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떡과 물고기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구세주께서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하셨을 때에 먼저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 보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마가복음 6 : 38) 음식이 충분치 않음을 알았지만 가진 것을 세어 보게 하셨습니다. 다섯 덩이의 떡과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은 자신이 환경을 더욱 잘 조정할 수 있게 해주며 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풍성하게 축복받았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하기를 바라십니다. 무리를 먹이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요한복음 6 : 1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남은 음식을 세어 보았습니다. 마가는 “남은 조각을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6 : 43, 요한복음 6 : 13참조)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은 적든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2. 지불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지불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아요”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어떻게 그것을 갚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구세주께서는 가진 것을 세어 정확히 알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 구세주께서 한번은 신중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누가복음 14 : 28~30)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마태복음 5 : 25)

즉 법적인 분규가 일어나기 전에 채권자와 이야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알려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정직성을 알고 여러분이 지불 계획을 조정하고 싶어하며 또 지불을 기피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 기꺼이 조정해 줄 것입니다.

3. 가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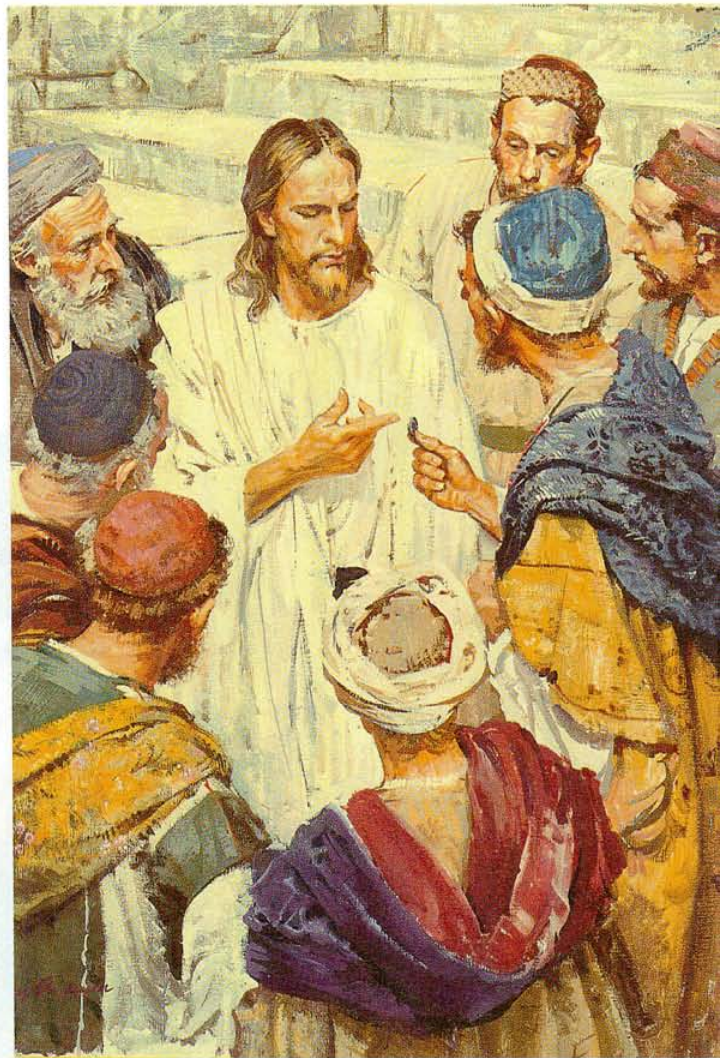
또 다른 경우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실 때에는 충분한 음식을 갖고 계시지 못하셨음에도 “축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 : 36참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염려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다면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실제로 “그의 축복을 세어” 보셨으며, 그 결과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놀라게 되었습니다.

4.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

주님은 제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도록 명하셨으며 그런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감에 따라 구하는 것을 제한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기꺼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마태복음 7 : 7~11)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거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빛을 झा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원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세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마태복음 17 : 24~27)

이것은 그것이 가능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을 단번에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빛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주님은 축복해 주시며 가진것을 더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면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원이나 가능성을 기억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영의 인도에 유의한다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누가복음 12 : 29~31)

5. 저축함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일입니다. 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을 때에는
저축하기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라도
매주 혹은 매달 조금의 돈이라도 저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축하는 습관이 자리잡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축액도 점차 많아질 것이며
그럼으로써 더욱 많은 저축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하더라도 그것을 늘리기를
바라십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종은 다섯 달란트를
받았고 다른 종은 두 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아 그것을 현명하게 투자하였던
종은 다섯 달란트를 받아 역시 그렇게 했던 종과 함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그의 주인은 그에게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라고 말하였습니다.(마태복음
25 : 23)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한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최소한 그것에 대한 이자라도 벌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5 : 27참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재물과 인생에서 그것의 위치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전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더욱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첨부된 목록 중 몇 가지 예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은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재정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를 주실 때를 바라며 기다리는 동안
현재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아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책 리운은 데저렛 출판사의 편집장이다. 그는 마그나 유타 서 스테이크 레이크
릿지 제 12와드 회원이다.

재물에 관한 흥미있는 성구들

- 재정 관리에 관하여
학개 1 : 6, 디모데 전서 5 : 8, 야곱서 2 : 19,
교리와 성약 38 : 39~40, 136 : 27
- 저축에 관하여
마태복음 25 : 1~13, 교리와 성약 45 : 65, 48 : 4
- 부채에 관하여
시편 37 : 21, 잠언 22 : 7, 로마서 13 : 7~8,
교리와 성약 19 : 35, 64 : 27, 104 : 78, 136 : 25

봉사에 대한 60가지 아이디어

1. 와드에서 나간 부부 선교사 및 모든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2. 여러분의 지역에서 봉사하는 복음 선교사와 함께 진도하러 나간다.

3. 복음 선교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어머니가 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할 때 도와 드린다.

4. 특별 활동 후 여러분의 성인 지도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다.

5. 청남 / 청녀 활동 후에 반원이 모두 청소를 한다.

6. 유아반 지도자의 지시하에 반원들이 상호부조회 가사 모임이나 와드가 참여하는 성전 봉사 동안 유아들을 보살펴 준다.

7. 여러분의 와드 건물 주변의 뜰을 청소하는 것을 돕는다.

8. 12세된 회원이 처음으로 우정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 옆에 앉거나 첫 활동 시간에 함께 해줌으로써 그들이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9. 운전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모임이나 활동에 태워다 준다.

10. 와드의 나이든 청소년들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 중에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나 과자류를 보내 주도록 한다.

11. 학교에서 다른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한층 노력하며, 특별히 좀더 관심이 필요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절히 대한다.

12. 조부모 혹은 아버지의 고모와 고조부에게 편지를 쓴다.

13. 여러분이 입기엔 작아진 옷을 골라서 동생들에게 주거나 입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준다.

14. 가정의 밤에서 어떤 임무 지명을 맡도록 자원한다.

15. 가족 중 누군가에게 남몰래 '감사합니다' 혹은 '사랑해요'라는 간단한 편지를 쓴다.

16. 일요일에 신의실 부모님의 구두를 깨끗이 닦는다.

17. 부모님이 성전에 가지거나 와드 활동에 참석하실 때 동생들을 돌보아 준다.

18. 와드 내의 나이 많으신 회원들이 구슬하는 역사를 받아 써서 기록해 둔다.

19. 누군가가 큰 봉사 활동을 제안할 때 지지해 주고 성공하도록 도와준다.

20. 이웃을 위해 지진이나 홍수 대비 위원회를 만든다.

21.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 준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어 주고자 하는 사람들과 관계있는 이야기를 몸소

써본다.

22. 지불 능력이 없는 가족이나 가족 중 병자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아기를 돌보아 준다.

23. 학교의 학습 내용을 따라가기 힘든 와드 내의 어린이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준다.

24. 여러분이 지닌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

25. 이웃의 아기 엄마가 두 시간 정도 쉴 수 있도록 그 집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가거나 놀아 준다.

26. 위급할 때에 와드내 어머니들의 아기를 돌아가며 돌보거나 가사 등을 해줄 수 있는 비상 대책 위원회를 조직한다.

27. 부부가 다 함께 와드 합창 모임에 가거나 합창 연습을 하러 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돌보아 준다.

28. 다른 종교 모임의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 청소 활동에 참여한다.

29. 와드에 새로 온 사람들과 반에서 함께 있어줌으로써 그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자원하여 봉사한다.

30. 아직 성도의 벗을 구독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에게 성도의 벗을 보여준다.

31. 와드에서 나간 선교사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의 구도자에게 편지 써 주기를 바라는지 또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누기를 원하는지 물어본다.

32. 집의 정원에서 나온 여분의 농산물(과일과 야채)을 와드 내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눈다.

33. 와드내에서 어떤 조직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의자 정리를 도와 준다.

34. 가족 역사와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을 배운다.

35.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격려의 편지를 쓴다.

36. 노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노래를 작곡한다. 훌륭한 노래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봉사하려는 마음이다.

37. 누군가 시를 쓴다면 그 사람의 시에 특별한 찬사를 보내고 곡을 붙여 준다.

38. 누군가가 조롱받을 때 그의 명예를 지켜 준다.

39.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잘잘못에 관계없이 사과한다.

40. 누가 사과할 때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용서한다.

41. 누가 그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면 그가 가진 존경할 만한 성품에 대해 들은 것을 익명으로 써 보낸다.

42. 방을 깨끗이 청소한다. 이것은

가족들에게 훌륭한 봉사가 된다.

43.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것도 가족을 위한 훌륭한 봉사이다.

44. 부모님께 순종한다. 부모님과 여러분을 위한 훌륭한 봉사이다.

45. 부모님이 여러분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대로 인정한다. 부모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46. 자신을 사랑한다. 여러분과 주변 모두에 대한 큰 봉사이다.

47. 만약 친구가 자살할 생각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며 비밀을 지키도록 맹세시키더라도 그 부모에게 말씀드린다. 이것은 당신이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될 몇 안되는 경우 중 하나이다.

48.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얼마나 감사하는지 또 그들이 가르친 대로 살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말한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49.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대부분의 봉사를 가족들에게도 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 그들도 역시 봉사를 필요로 한다.

50. 학교나 교회에서 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켰다면 지금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51. 여러분의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와드 활동 위원회를 위해서 앞으로 열릴 행사의 포스터나 기를 만든다.

52. 와드 도서실에 가정의 밤 시각보조 자료를 준비해 둔다.

53. 여러분이 사는 시에 자원 봉사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원 봉사를 한다.

54. 여러분이 사는 곳에 자원 봉사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봉사를 한다.

55. 비회원 친구에게 물몬경을 줄 때가 사나 정원일 또는 아기 돌보기 같은 봉사도 하겠다고 제안한다.

56. 어느 어머니가 새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남편이 병원에 있는 아내를 보러 갈 수 있도록 그 집의 다른 자녀를 돌보아 준다.

57. 다른 자녀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그 어머니가 새로운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갖게 해준다. 혹은 그 새로운 아기를 돌봄으로써 그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해준다.

58.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사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카드를 보낸다.

59. 장애가 있거나 스스로 편지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편지를 써준다.

60.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한다.*



300개의 양피 두루마리

마리오나 워쉬번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지어다. 저는
…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교리와 성약 128 : 22)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지어다. 저는 …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교리와 성약 128 : 22)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나는 비회원 남편의 18세기 조상들이 수집해 두었던 자료들을 편집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200명에 가까운 이름들을 얻었다. 그것들은 주로 나의 모국어인 카탈로니아어로 쓰여진 일지들에서 나왔다. 그것들 말고도 라틴어로 적혀져 있고 15세기에 손으로 기록된 가치있는 300개 가량의 양피 두루마리를 나는 남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가정 형편 때문에 이러한 라틴어 자료들을 취급하기 위해 나에게 허용된 시간은 극히 짧았으며, 나는 그것들을 해독할 수가 없었다. 사진 복사를 할 돈도 없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한 친구에게 자신들이 해둔 일이 완성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영들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에게 신권의 축복을 받도록 권했다. 나는 금식을 하고 축복을 받았으며, 그 축복을 통해 영적인 힘이 파도처럼 밀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은 여전히 나를 위축시켰으므로 나는 한동안 그 양피지들을 쳐쳐 두었다.

마침내 번역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 주만 남게 되었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뜻이라면 부디 내가 그 옥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속량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때로부터 그 문자에 대한 나의 이해력이 훨씬 더 밝아졌다. 나는 사전 없이도 번역할 수 있게 되었다. 각각의

두루마리가 더욱 쉬워졌으며 더욱 더 빨리 읽게 되었다. 나는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얻었으며 불과 몇 시간만 자고 일했음에도 지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일해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많은 영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느꼈다.

취들이 여러 세기에 걸친 그 기록들을 감아 먹어서 그 자료들 중의 일부가 없어진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잃어버린 정보들을 그 기록들의 다른 부분에서 찾아냈다. 때로는 써야 할 어떤 것을 빠뜨리고 다시 그 두루마리를 읽어야 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두루마리를 펴면 필요한 자료를 즉시 찾을 수 있었다. 번역이 어려울 때마다 나는 진지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항상 응답을 받았다.

나는 떠나기 직전 4일 만에 그 번역을 마쳤다. 내가 수집한 그 자료중에는 서기 1212년 이전의 더 오래된 것도있었다. 나는 천사도 시현도 보지 못했으나 매일매일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드린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에게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하는 엘리야의 영을 지녔다는 간증을 지금은 더욱 많이 갖고 있다. 나는 ‘갖힌 자가 석방될 것’(교리와 성약 128 : 22)을 영을 통하여 안다.*

마리오나 워쉬번은 마운틴버넌 워싱턴 스테이크의 마운틴 버넌 제2와드의 회원이다.



양들의 이름을 앎

신시아 퍼넬

그 양치기 노인이 살고 있는 평평한 산 꼭대기를 향해 차를 몰아가는 도중에 땅거미가지기 시작했다. 저녁 빛 속에서 남루한 여섯 개의 형상이 오렌지색 하늘과 대조를 이루며 윤곽을 드러냈다. 마치 얼굴을 흉하게 그려 놓은 허수아비 같아 보였다. 그 형상들이 걸치고 있는 찢어져 조각난 검은 겂옷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으며, 매달린 깡통들이 둔하게 철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스름 속에서 그것들은 기분나쁘고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이상스런 모습에 겁이 나서 나는 동반자에게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저렇게 무서운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거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트럭을 돌려 나바호 인디언 보호 지역의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오던 곳으로 차를 되물었다. 아리조나 홀부룩 선교부의 선교사로서 우리는 누구와도 복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아마 이런 기묘한 사람 같은 형상을 만드는 이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주 동안 우리는 그 양치기를 방문해 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는 낮에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는 그가 고목 옆에서 자신이 만든 허수아비 중 하나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손에 나무 지팡이를 들고, 검고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트럭에서 내려 가까이 오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 보고 있었다.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눈은 잔잔해보였다. 주름진 갈색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나의 동반자는 새로 부름받아 온 선교사였으므로 나바호말을 할 줄 몰랐다. 나도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라는 뜻의 나바호말로 우리를 소개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나바호말로 인사할 만큼 그 말을 아는 데에 그는 놀란 듯했다. 그는 내게 영어로 대답했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당신 말은 듣지 않겠소.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그의 말소리는 거칠었으나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소리보다 더 뚜렷한 친절과 환영을 느꼈다. 우리는 논쟁을 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으며, 오래지 않아 다시 와서 그를 만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후 몇 달 동안 우리는 그 양치기 노인을 자주 방문했다.

그는 양들과 함께 멀리까지 돌아다녔으므로 때때로 우리는 언덕 꼭대기까지 운전하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그를 만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시골을 샅샅이 찾아 다녀야 했다. 우리에게는 매번의 방문이 다 소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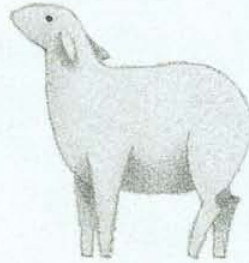
그의 오두막이 너무 좁았으므로 함께 앉아 얘기할 자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우리 트럭 뒷칸에 앉았다. 너무 추운 날씨일 때는 트럭 안에 함께 꼭 들어차 앉았다. 내가 나바호말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고 그 역시 그 정도밖에 영어를 알지 못했으므로 방문할 때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서로 배웠다. 내가 나무를 가리키고 영어로 그 이름을 말하면 그도 나무를 가리키고 나바호말로 말했다. 우리는 둘 다. 새로운 말을 반복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할 만큼 나는 조금씩 조금씩 나바호말을 배워 갔으며 그도 영어를 그렇게 배워갔다.

우리는 그에 대해 차차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피터 왈리였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 육군이 복무하면서 얻게 된 이름이었다. 여러 번 방문한 후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얘기를 나눌 때 나는 영의 영향력을 강하게 느꼈다. 나의 나바호말은 그때까지도 충분치 못했으나 여러 번 내가 안다고 생각지 못했던 나바호말을 사용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명확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음에도 그는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됨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주 전통적인 나바호인이었으며, 우리에게 나바호의 풍습을 많이 가르쳐 주었다.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나바호인에게는 무례하게 여겨지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배웠다. 내가 질문을 마치고 그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강과 그 밖에 그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구경시켜 주었다. 여우굴과 코요테가 사는 곳도 보여

피터는 그의 양들을 사랑했다. 추운 밤에는 오두막 안에서 새끼양과 함께 지냈다. 그는 그 양들의 이름과 각 양들의 습관도 알고 있었다. 그는 무척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주었으며, 양떼를 모으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첫 방문을 막았던 키크고 검은 옷을 걸친 그 허수아비처럼 생긴 형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여 주었다. 그것들은 자매 선교사들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양떼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코요테를 멀리 쫓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그의 양들을 사랑했으며 좋은 풀밭을 찾으려고 매일 아주 멀리까지 양떼를 이끌고 다녔다. 추운 밤에는 오두막 안에서 새끼 양과 함께 지냈다. 그는 무척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양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양들의 이름과 각 양들의 습관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있는 그를 찾아 다니다가 양떼로부터 떨어져나온 양 한마리를 보았다.

우리가 그를 찾아 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피터, 당신의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언덕 저편에서 발견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오, 알아요. 그 녀석은 박스요. 늙었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죠. 그 녀석은 괜찮아요.” 나는 감탄했다. 그는 어떤 양이 시야에서 벗어나 멀리 있더라도 그 양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피터는 내가 놀라는 것을 보고 웃었다. 그도 박스보다 이빨이 더 많지는 않았다.

그가 나를 키 큰 하얀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확실하게 그의 신뢰를 얻었음을 알았다. 나바호인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인사인 것이다. “키크고 하얀”이라는 말은 나의 키와 넓은 금발 때문이었다.

한번은 그에게 우리가 식탁용 매트를 만들어 주었다. 그

위에 기도의 네 단계를 적은 종이로 만든 것이었다. 우리는 그 종이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을 덮어 주었고 그는 그것을 그의 작은 식탁 위에 두었다. 그는 그 작은 식탁 매트를 무척 좋아했는데, 나는 그가 기도하기를 좋아하므로 그럴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양떼를 지키면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 지시를 받기 전까지 일곱 달 동안 피터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는 나바호 장로들 몇이 그를 가르쳤다. 그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교회에 들어왔다. 나는 그 훌륭한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문을 여는데 도와 주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피터는 양떼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자주 갈 수가 없었다. 그는 교회에서 90km 떨어진 곳에 살았으며 트럭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없었으며 또 180km나 되는 거친 시골길을 운전해서 그를 태워 준 다음에 집으로 데려다 줄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피터는 선하게 살 좋은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그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다. 나는 피터가 그의 늙은 박스를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가 있는 곳을 아시리라는 사실을 안다.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홀로 있지만 그는 그 우리 안에 있었다.

나는 피터를 나의 교사로 생각한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바호말을 가르쳐 주었다. 또 나에게 양과 코요테 그리고 인내와 침묵과 불모지에 있는 목초지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더욱 훌륭한 것은 각각의 양을, 양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잃은 듯이 보이는 이빨없는 늙은 양조차도 사랑하고 아는 선한 목자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이다. *

올바로 지으십시오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는 각자 구세주를 따름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구 세주를 따름으로써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집을 훌륭하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막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느 젊은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돈많은 아버지의 친구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리를 잡도록 돕고 싶네. 내 집을 지어 주게. 여기 설계도가 있네. 비용은 아끼지 말게. 가장 좋은 재료를 쓰고 또 숙련된 일꾼들을 고용하게.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말게. 내게 계산서만 보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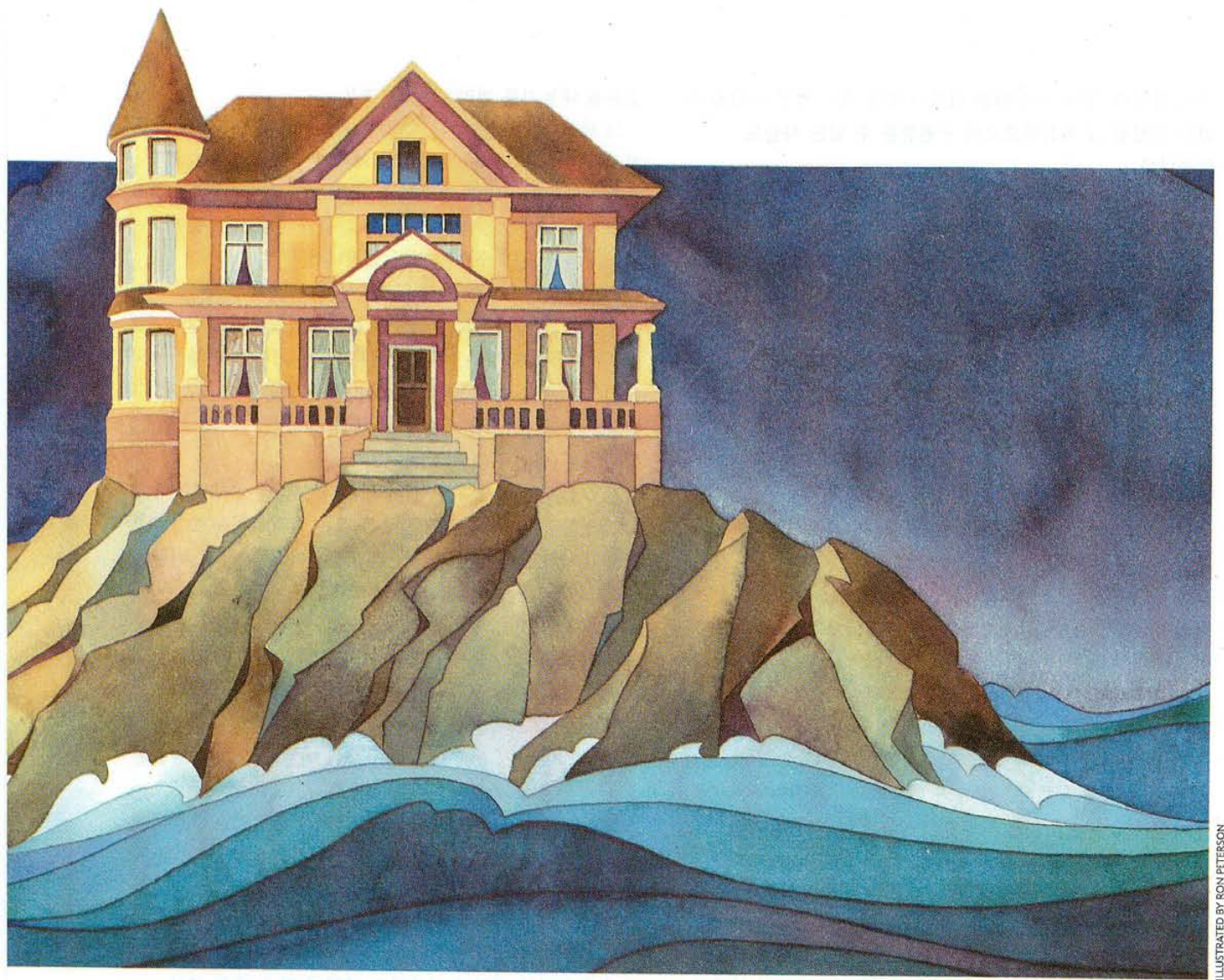
그 젊은 건축가는 이 너그럽고 무제한적인 제안에 한 밀천 잡아보겠다는 헛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숙련된 일꾼과 훌륭한 재료를 쓰는 대신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은인을 속였습니다.

마침내 가장 형편없는 벽에다 역시 가장 형편없는 못을 치고서는 그 젊은 건축가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에게 열쇠와 계산서를 넘겨 주었습니다.

“자네가 지은 그 집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그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기 바라네.”라고 그는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젊은 건축가가 그의 부정직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그는 아마 오래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ILLUSTRATED BY RON PETERSON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태복음 7:24~27)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각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넓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집을 건축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인생의 집을 건축할 열쇠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그리스도의]이 말을 듣고 행하는”(마태복음 7:24)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태복음 5:14)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지냄으로써 우리는 생활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빛을 비치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는 지식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과 그것이 우리 생활에 가져다 주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은 한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빛을 내는 램프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자신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39편에서 주님은 그 당시 개종한 지 얼마 안되는 제임스 코빌에게 만약 그가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모든 것을 보여 주시며 왕국의 평화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의 침례”(교리와 성약 39 : 6)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때에 권능이 네게 머물 것이요, 큰 신앙을 갖게 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 앞장을 서리라.”(교리와 성약 39 : 12)

이 같은 약속은 신앙이 굳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활의 기초를 다른 사람들과 주님에 대한 봉사 위에 세운다면 우리는 가장 훌륭한 건축가의 도움을 약속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요한계시록 3 : 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 그분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시도록 해 드리지 않는 한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만 우리는 항상 옮겨 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첫째 원리는 소망,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마태복음 22 : 37)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실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교리와 성약 4 : 5) 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와 이 훌륭한 교회에서 연령 차이가 우리 사이를 갈라 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원리가 우리를 결합시킵니다. 이제 인생의 건축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통해 인도되어 온 그 길로 청소년 여러분도 같은 믿음을 통해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원리 중 몇 가지를 경전에 기록된 것처럼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마태복음 19 : 16)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직접 얻을수만 있다면 누가 그 답을 알기를 꺼리겠으며, 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놓기를 꺼려하겠습니까?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태복음 19 : 17) 다음의 신비로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렇습니다. 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달리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단호하면서 영광스러운 훈계를 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19 : 18~19)

가장 훌륭한 인생을 위한 이 얼마나 장엄한 청사진입니까? 이 계명들과 그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도전과 악에 대항하는 튼튼한 요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계명에는 시간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성실해지고 도덕성을 키우는 데에 방패 역할을 함은 물론 이웃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일성도들이 건축할 수 있는 인생의 집입니다.

요셉 스미스 생전에 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그들의 영원한 집을 지을지에 대해 의문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저곳으로 자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영원히 그곳에 머물 것처럼 지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주의깊게 공부해 보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마음 깊이 예수님과 그분의 신성한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는 강하고 헌신적인 지도자들의 영감어린 인도를 따랐던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위하여 또 구세주와 함께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한다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나 훈련 혹은 근면이나 순종하는 데서 속임수를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속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은인을 속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중하고 견고하게 건축하려 할 것이며, 우리가 받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훌륭하게 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우리는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축물이 완성될 때 그것은 경이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



“아론을 성직에 임명하는 모세” 해리 앤더슨 그림

출애굽 후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동식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장막이 완성된 후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에게 성전 의식을 집행하는데 전념하라 지시했다. 그리고 모세는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레위기 8 : 1~12참조)



복 아일랜드에 사는 퍼거슨 가족에게 청각 장애는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으로 들음” 14쪽 참조.